완도군, 축제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

장보고수산물축제 등 전시 · 체험 · 공연 등

1월 20일부터 2월 21까지 접수, 3월 중 발표

완도군은 대표 축제인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산도슬로걷기축제, 토요싱싱콘서트, 청정완도가을빛여행 축제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군은 신선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축제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이다.

공모전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대표 축제의 기획방향과 일치하는 전시 · 체험 · 공연 프로그램 등이다.

공모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등 5가지 항목을 심사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는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안서와 세부계획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완도군청 관광과(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E-mail,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총 8팀으로 최우수상(1팀)에게는 100만 원, 우수상(2팀)은 50만 원, 장려상(5팀)은 30만 원의 상금과 공통으로 완도군수상장이 수여된다.

완도군청 관광과 이송현 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군 축제들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전국 대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함에 있다."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그램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올해 청산도슬로걷기축제(4. 4 ~ 5. 2), 장보고수산물축제(5. 2 ~ 5. 5), 토요싱싱콘서트(6~9월, 매주 토요일 예정), 청정완도 가을빛여행(10월)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광양 목성리 '도시재생대학' 개강

7주간 실습 위주로

광양시는 지난 16일 광양읍 개성마을쉼터에서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대학 개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도시재생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여러 사업의 타지역 사례를 학습하고 의견 교류과정에서의 약속들과 공통으로 추구해갈 목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증진과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주원)의 주관하에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약 7주간 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광양읍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며, 지난 수년간 도시재생대학과정을 수료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이 다수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대학은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는 실습 위주의 워크숍 등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과정은 분임별 워크숍(우리지역의 보물찾기, 계획 세워보기 등), 특강, 선진사례 답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광양읍, 광영동, 태인동 3건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의 광양읍 활성화지역을 실제 사업면적에 맞게 축소 조성하고 활성화지역을 분리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는 목성리 지역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0년 공모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계획 수립을 위한 좋은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광양읍 원도심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단계별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의 전남도 승인 등을 조속히 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암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합동캠페인 실시

바른 원산지 표기 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암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는 최근 영암읍 전통시장에서 영암군, 소비자단체, 상인회와 합동으로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의 자율적인 농산물 원산지표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농식품 유통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인들과 소통하며 자율적인 원산지표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상인회와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들은 원산지 표시푯말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일부 잘못 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수정하여 주고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농관원은 영암군 관내 모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영암사무소 신형중 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상인들 스스로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원산지 자율표시가 정착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전통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진도군,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진도군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홍보를 위해 읍 · 면 담당자와 NH농협은행,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자는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이며,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 · 어업인 대상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전통시장 장 보는 날' 운영

장흥군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를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 보는 날'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토요시장에서 시작된 '전통시장 장 보는 날'에는 정종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장흥군 공무원 26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미리 구매한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설 명절에 사용할 제수용품 및 특산품 등을 구매했다.

각 읍면 전통시장에는 읍면 직원들과 자매결연된 실과소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해 장흥군 전통시장 전반의 활성화와 관광객들이 혼잡 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장흥군에서만 쓸 수 있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장흥군 전직원이 1인당 10만원씩 구매해 설 명절 이외에도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장흥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한다."며 "전통시장 장 보는 날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모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강진군, 공동생활의집 공모사업 선정

전남 총 8개소 중 강진군 2개소 선정

공동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된 숙소의 모습

전남도가 주관한 '2020 공동생활의 집 공모사업'에 전남 1총 8개소 대상 중 강진군의 경로당 2개소가 선정됐다.

공동생활의 집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일부를 공동 숙식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해 2인 이상 입주하게 하는 제도로, 입주자 서로가 공동부양하며 생활하게 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올 한해 '경로당 공동생활의집 설치사업'에 총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홀로 고독하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사업은 고독사 방지 등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구축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한편, 이승옥 군수는 "어르신들이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행복한 노년을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해치지 않아
2관	닥터 두리틀
3관	나쁜 녀석들:포에버
4관	백두산,
5관	나쁜 녀석들:포에버
6관	시동
7관	닥터 두리틀
8관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싱어롱 자막] 겨울왕국 1+2
9관	천문:하늘에 묻는다, 미드웨이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앰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1관	해치지 않아, 신비아파트 극장판, 타발루가와 얼음공주
2관	백두산, 천문-하늘에 묻는다, 시동, 눈의여왕4
3관	나쁜 녀석들-포에버
4관	해치지 않아
5관	해치지 않아, 미드웨이, 시동
6관	닥터 두리틀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